

## 갈보리 소식

- ※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.
- ※ 2011 교회표어: 기도로 세워지고,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(행6:4)
- ① **부활주일:**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.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- ② **당회:** 1부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. .
- ③ **월례회:** 4 남선교회, 1 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.
- ④ **새벽기도회:**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.
- ⑤ **수련회:**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26일(화)부터 29일(금)까지 YFC 주관으로 있습니다.
- ⑥ **음악교실:** 피아노반, 풀룻반, 챔버반을 모집합니다.(선착순)  
기간:2011년5.13(금)-7.1(금)  
시간: 매주 금요일오후1시-7시10분 장소:Chapel Room  
문의:940-3381, 369-5077(교회)
- ⑦ **모임:** 2남선교회 부모모임이 있습니다.  
일시: 4월 30일(토) 6:00PM 장소: 최광암 집사 가정 (14 Allen Johnston Pl. St. Johns, Ph: 528-4230)
- ⑧ **감사:** 꽃꽂이 해주신 이순옥 집사님, 식사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

## 갈보리교회 선교지

### 해외 선교지

- ▷ 루마니아: 김유정선교사 (집시지역)
- ▷ 중국: 김강한목사 (탈북자지역)

### 국내 선교지

- ▷ City Mission 섬김
- ▷ 밀알장애우 봉사

## 5월 교회일지

### 어린이 주일

(유아세례식):  
5월 1일



### 어버이 주일:

5월 8일(주일)

### 이삭줍기주일:

5월 22(주일)

## 교우 소식

이사: 김동수, 민선희 집사 E 271 Manukau Road Epsom (전화 동일)

## 5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

	1부기도	2부기도	수요기도	예배 안내	새신자 안내	주차안내	주방봉사
1일	고성일	최장한	김인희	박병민/이기중	노은숙/심경순/김광자	양봉옥	정희자/한상순/김재연
8일	이동술	김성희	김재연	박병민/이기중	노은숙/심경순/김광자	양봉옥	정희자/한상순/김재연
15일	최득수	김정민	정진택	박병민/이기중	노은숙/심경순/김광자	양봉옥	정희자/한상순/김재연
22일	박일영	김이삭	김정옥	박병민/이기중	노은숙/심경순/김광자	양봉옥	정희자/한상순/김재연
29일	김영길	진혜령		박병민/이기중	노은숙/심경순/김광자	양봉옥	정희자/한상순/김재연

##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

1.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자유함의 영이 풍성히 임하도록 (김기섭, 김경수등)
2. 성전 건물 매입이 은혜롭게 추진되고,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
3. 한 주간 기도한 훈련이 중단되지않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계속 일어나 기도 중심의 성도들이 되도록
4. 우리가 후원하는 김유정 선교사(루마니아)의 공동체 시설 건축이 잘 추진되도록

##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

담임목사	: 이태한
부목사	: 심창진
교육전도사	: 진혜령
시무장로	: 김영길, 이광희
	: 정관영, 현석호
은퇴장로	: 김교섭, 박일영
	: 정덕수, 최재학
	: 유승재, 박제용
지휘	: 신경화
반주	: 송민영, 유지선

2011 교회표어: (사도행전 6:4)

“기도로 세워지고,  
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”

**예배시간안내**

주일1부예배 주일 PM1: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:00 유아실

주일2부예배 주일 PM3: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:00 Chapel

수요일예배 수요일 PM7: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:00 별관

새벽기도 금요일 AM5:50 Chapel

**갈보리교회**  
CALVARY PRESBYTERIAN CHURCH

**부활주일**  
2011년 4월 24일

주보 13권 17호

[www.calvary.org.nz](http://www.calvary.org.nz)

*St David's Presbyterian Church. 70 Khyber Pass Rd. Grafton Ph: 09 - 369-5077*

**갈보리 교회 목표**

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

**갈보리 교회 비전**

1.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
2.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
3.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

## 주일1부예배

오후 1시	인도:이태한목사	반주자
전주		
예배로 부를	베드로전서 1:3-4	인도자
개회송		찬양대
참회의 기도		다함께
*찬송	29장	다함께
*성서교독	133 부활절	다함께
*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161장 (구 159장)	다함께
대표기도		박병민집사
성경봉독	요한복음 20:1-16	인도자
찬양대찬양		나무십자가찬양대
설교	안식 후 첫날의 기쁨	이태한목사
찬송	160장 (구 150장)	다함께
헌금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*응답송	주기도문 송	다함께
*축도		이태한목사

\*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 
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

기도순서안내 | 다음주 기도: 고성일 집사 5월 8일: 이동술 집사

지난주일통계 | 1부 117명 2부 15명 학생부 23명 아동부 10명 유아부 14명 총계179명

## 성서교독 133: 부활절

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  
어 살리셨으니  
**이는 그가 사망에 패여 있을 수 없었  
음이라**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
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 
감사 하노니

**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  
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 
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**

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 
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 
이 있을지어다 하시니

**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 
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**

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  
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 
느냐

**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 
나를 만져 보라**

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 
바와같이 나는 있느니라

**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 
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 
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**

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 
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 
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 
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 
믿느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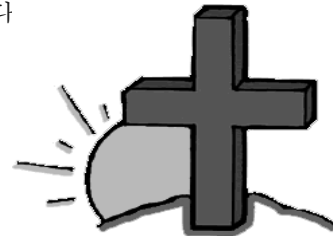
**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  
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 
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**

## 칼럼

### 내 아버지의 부활절 추억

- 손인식 목사

매 해마다 부활절이 오면 돌아가신  
저의 부친께서 부활절을 지내시던 여러  
가지 추억들이 반드시 한번쯤은 제 마  
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. 전쟁이 끝나  
고 누구나 다 힘들어 하던 그 시절에도  
지금 처럼 수난주간 새벽기도가 있었습  
니다. 그럴 때면 원칙론이 강하셨던 제  
아버님은 두말 할 것 없이 제 누님들,  
형님, 그리고 저는 물론 제 여동생들  
까지 이불 짐을 등에 지고라도 수난주  
간 새벽 기도에 나가게 하셨습니다. 새  
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밥상에 둘러앉  
으면 식구들의 원성이 대단했지만 그  
분은 끄떡도 안하셨습니다. “만일 내  
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너희들 이부자  
리에 찬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해 주겠  
다” 고 협박하시던 독재자(?)이셨습니  
다.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는 마음  
한가득 아련히 밀려드는 추억이 되어있  
는 것입니다. 부활절 새벽이면 연합새  
벽 예배를 향해 가시면서 “할렐루야,  
우리 예수 부활 승천 하셨네” 를 있는  
힘껏 솔로 찬송을 하시며 온 동네를  
깨우셨습니다. 그것이 너무 창피하고  
견디기 힘들어서 제발 그쳐달라고 자식  
들이 탄성을 질렀는데 그중에 둘째  
아들인 제가 제일 심했던 기억이 남니  
다. 그러나 이런 글을 쓰면서도 제  
가슴을 울리는 아버님의 신앙고백을  
알고 있는데, 그 분은 그 누구보다도  
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성도이어  
서 부활절 새벽이면 그 찬송을 그렇게  
소리 높여 부를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 
인정입니다



연세가 30이 넘도록 제 부친은 하나  
님을 피해 다니고 제 할머니의 기도 소  
리를 피해 다니던 “막 탕” 이셨다고  
합니다. (막탕은 막 나가던 탕자의 약  
자입니다). 그러나 서른을 넘어 방황  
하던 삶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의 손에  
붙잡혀 “돌탕” 이 되신 제 아버님의  
신앙고백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. 예수  
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!..와 언제  
죽어도 “하나님, 내 영혼을 부탁하나  
이다”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신념이셨  
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고백을  
다하고 1973년 미국 땅에 발을 디딘지  
3개월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. 생각  
해 보면, 믿는 것만큼 신앙의 달력을  
지키는 것입니다. 믿는 것만큼 성탄절  
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며 믿는 것  
만큼 부활절이 왔을 때 목청을 높여 찬  
송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신앙 때문  
에 어린 자녀들에게 찬 물을 뿌려가면  
서라도 수난 주간 새벽기도에 나오게  
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우리 베델성  
도들도 이번 한 주간을 수난 주간 특별  
새벽기도회로 “수새” 의 새벽시간들  
을 맞게 됩니다. 놀라운 것은, 지금 우  
리 엄마, 아빠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 
신앙고백과 행동을 어린 자녀들이 다  
그들의 기억 속에 입력하는 중 에 있다  
는 사실입니다. 왜 새벽에 깨우느냐,  
왜 노래를 그렇게 크게 부르느냐?..  
하고 투정을 해도 상관치 말았으면 좋  
겠습니다. 그것이 훗날 저들의 기억  
속에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내 아버지,  
내 어머니의 부활 신앙고백으로 자리  
잡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진담 반,  
농담 반으로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  
다. 이번 “수새” 동안 정 일어나기  
힘드신 분들에게는 찬 물 들고 찾아갈  
까요?! 할렐루야!

## 주일2부예배

오후3시		
찬양	청년찬양단	다함께
기도		박병민집사
성경봉독	마가복음 16:1-8	인도자
설교	두려움을 넘어서	심창진목사
찬송	무덤에 머물러 (160장)	다함께
헌금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축도		심창진목사

다음주 기도: 최장한집사

## 수요예배

오후7시30분		
찬양	수요찬양단	다함께
기도		김윤숙집사
성경봉독	요한계시록 21:1-4	다함께
설교	영광을 바라보라	이태한목사
찬송	135장 (구 222장)	다함께
광고		인도자
주기도		다함께

수요애찬 기도: 조여진집사  
다음 수요기도: 김인희집사